■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85-129.
http://doi.org/10.17948/kcs.2021..92.85

【특집: 〈청문감류〉 만주어 사전에 나타난 언어와 문화】

『御製增訂淸文鑑』의 만주어 한자 주음 연구*
—三合切音의 원리 및 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성우철(成宇哲)**·김유범(金裕範)***·정은진(鄭恩珍)****·오민석(吳慜錫)*****

목 차

1. 들어가며
2. 한자 주음 표기와 삼합절음
3.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 한자 주음 분석
4. 나오며

국문초록

『御製增訂淸文鑑』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三合切音은 최대 세 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만주어 음절의 소리를 나타낸 주음 방식이다. 삼합절음은 讀若, 直音, 反切 등 기존의 주음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음절 구조에 따라 글자의 배열을 달리하거나 분절음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자를 선택하는 등 만주어 음절을 더 세밀하게 표기하기 위한 장치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8089).
** 제1저자. 신라대 국어교육과 강사.
*** 교신저자.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 공동연구자. 고려대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 공동연구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연구보조원.

마련하였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三合漢字十二字頭」」를 통해 정연하고 체계적인 삼합절음 표기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음 표기에서는 이러한 음절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상도 일부 발견된다. 삼합절음은 만주어 음절의 복잡한 양상을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하였지만, 한자 주음의 역사에서 가장 발달한 주음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주음 방식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주제어: 御製增訂淸文鑑, 三合切音, 한자 주음, 외국어 전사 표기, 만주어.

1. 들어가며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지만 한편으로는 그 표음적 특성에도 주목할 만하다. 그것은 한자가 소리를 적는 데 다양하게 사용되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讀若이나 直音, 그리고 反切로 이어져 온 한자 주음의 역사는 청대의 『御製增訂淸文鑑』에서 보이는 三合切音 표기에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한자 주음의 역사에서 삼합절음은 반드시 조명되어야 할 대상이다.[1)]

본고는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 한자 주음 방식, 즉 三合切音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주음 방식의 형성 배경과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 표기의 실제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어제증정청문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한자 주음의 역사적 전개 양상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

1) 일반적으로 '注音'이라는 용어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을, '寫音'은 외국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을 지칭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과 외국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을 모두 '注音'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은 더 엄밀한 관점에서 보자면 한자에 관습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한어 형태소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과 외국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은 모두 언어의 소리를 한자로 적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같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을 狹義의 '注音'이라고 한다면, 한어든 한어 이외의 다른 언어든 간에 언어의 소리를 한자로 표기하는 일은 廣義의 '注音'이라고 부를 만하다. 본고에서 한자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과 외국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일을 모두 '注音'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의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자 주음 표기와 삼합절음

1) 한자를 이용한 주음 방식의 역사

오늘날과 같이 拼音 부호를 이용해 한자의 발음을 적을 수 없었던 고대 중국에서는 한자를 이용하여 注音을 하였다. 한자의 음에 대해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말로써 발음 양상을 설명했던 이른바 '譬況'을 엄격한 의미의 주음에서 제외하더라도[2]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음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1) 가. 讀若(=讀如)
예 摧讀若崔, 璁讀若葱, 珣讀若苟
나. 直音
예 壕 音豪, 茅音苗, 塡田
다. 反切
예 東 德紅切

먼저 (1가)의 '讀若'은 漢代에 성행한 한자 주음 방식으로 비교적 자주 쓰이는 同音의 한자로 해당 한자의 음을 표시하는 방법이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崔, 葱, 苟'와 같은 한자들이 비교적 자주 쓰였던 동음의 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나)의 '直音' 역시 한대에 널리 쓰였는데, 바로 한 개의 字音으로 직접 또 다른 한 개의 字音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直音'은 주음 방식상 '讀若'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때로는 字音을 반드시 고쳐 읽어야 함을 명시해 놓기도 하였는데, 위 예에서 '茅音苗'가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다)의 '反切'은 東漢 말기에 출현한 새로운 주음 방식으로서 동음

2) '譬況'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볼 수 있다. 言乃者 內而深, 言而者 外而淺.('乃'를 발음할 때는 기류가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고, '而'를 발음할 때는 기류가 바깥 얕은 곳으로부터 나온다.)

의 한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동음자가 僻字일 때 쓰일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위의 예에서 '德'은 이른바 反切上字가 되어 聲을, '紅'은 反切下字가 되어 韻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雙聲과 疊韻을 피하여 반절상자에는 성모가 서로 같은 글자를, 반절하자에는 모두 성모가 없는 글자를 쓰려고 하는 등 표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는 하였으나, 반절은 拼音 부호와 같은 수준의 표기 방법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전통적인 주음 방식은 한자로 한자의 발음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특징과 더불어 그 한계를 지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자로 한자의 발음을 적고자 했던 오랜 시도는 한자가 지닌 표음적 기능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시도가 한자를 이용해 다른 언어를 적는 또 다른 차원의 표음화로 나아가는 경험적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2) 한자를 이용한 외국어 표기와 삼합절음

한자가 지닌 표음적 기능은 한자 자체의 음을 적는 데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표기하는 데도 이용되었다. 뜻보다는 음에 초점을 두어 한자를 사용하는 일은 이른바 六書 중 하나인 '假借'와 연관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자를 이용하여 외국어를 표기한 경우를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가. 佛陀, 涅槃, 三昧, 阿修羅, 偈
나. 成吉思, 帖木眞, 出勑格台, 模中合里, 古出沽舌児
다. [天] 騰吉舌里, [壇] 約中忽兒中合, [蓬] 坎中合丁溫, [時]

(2가)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漢譯하는 과정에서 한자를 이용해 음을 표기한 것으로, 이들은 각기 산스크리트어 'Buddha, Nirvāṇa, Samādhi, Asura, gāthā'를 그 표기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때 사용된 한자의 음은 사실상 산스크리트어의 정확한 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가장 유사한 음을 지닌 한자를 표기에 사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2나)는 『元朝祕史』에 나타나는 몽골의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이들은 각기 중세 몽골 인명 'cinggis, temüǰin, cülgetei, muqali, gučügür'를 대상으로 한 표기이다. 이때 '勒'은 'l'을, '中'은 'q'를, '舌'은 'r'을 표기한 것으로 상하 위치에 달린 小注字 형태로 해당 음을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2다)는 甲種 『華夷譯語』에서 몽골어를 표기한 것으로 기본적인 표기 방식은 『元朝祕史』의 것을 따르고 있다.[3] 특히 소주자 형태로 표기된 한자에 대해 범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두었다.

一。字傍小注中字者。乃喉內音也。如中合中忽之類。
一。字傍小注舌字者。乃舌頭音也。必彈舌讀之。如舌兒舌里舌剌舌魯舌侖之類。
一。字傍小注丁字者。頂舌音也。以舌尖頂上齶音鄂讀之。如丁溫丁兀丁豁丁斡之類。
一。字下小注勒字者。亦與頂舌同。如冰呼莫勒孫之類。
一。字下小注黑字。惕字。克字者。皆急讀帶過音也。不用讀出。
一。字下小注卜字。必字者。皆急讀合口音也。亦不用讀出。

이들 소주자는 한자의 좌측(위에서는 위첨자로 표시됨)이나 아래쪽(위에서는 아래첨자로 표시됨)에 표기되어 몽골어의 특별한 발음을 지시해 주고 있다. 이는 외국어 발음을 적는 데 한자를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이러한 표기 방식은 한자를 이용한 발음의 표기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

3) 현존하는 『화이역어』의 이본은 편찬 시기에 따라 크게 다음의 네 부류로 구분된다.
① 甲種: 洪武 22년(1389). 翰林院 侍講 몽골인 火源潔이 편찬. 최초로 편찬된 한어와 몽골어의 대역어휘집. 『元朝祕史』의 주음 방식에 따라 몽골어를 한자로 표기함.
② 乙種: 永樂 5년(1407). 四夷館. 해당 언어를 한자로 주음하는 동시에 그 언어의 고유문자로 표기함. 대역어휘부와 表文의 文例로 구성됨.
③ 丙種: 15세기. 會同館. 해당 언어를 한자로만 주음하고 그 언어의 고유문자로 표기하지는 않음. 대역어휘부만으로 구성됨. 13개 역어.
④ 기타: 18세기. 會同四夷館. 歐羅巴語까지 포함하고 있어 汎亞細亞를 넘어 汎世界的인 어휘집이라고 할 만함. 일본 학계에서는 흔히 '丁種'이라고 불림.
『화이역어』를 '甲種, 乙種, 丙種'의 세 부류로 구분하는 방식은 일찍이 石田幹之助, 「女眞語研究の新資料」, 『桑原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31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후 會同四夷館에서 편찬한 이본을 포함하여 네 부류로 구분하는 방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화이역어』의 외국어 표기와 관련하여 만주어의 전신인 여진어를 기록한 「女眞譯語」를 살펴보면 한자를 이용해 여진어를 어떻게 적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4] 「여진역어」 '雜字'에서 여진어를 표기하는 데 쓰인 한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유형화된다.[5]

(3) 가. [路] 住兀(*ʤuǔgu), [東] 諸勒失(*ʤuləʃi), [女眞] 朱先(*ʤuʃən)
나. [且] 塔哈(*taka), [難] 莽哈(*maŋga), [腸] 都哈(*duha)
다. [國] 國倫(*gurun), [立] 一立本(*ilibun)

(3가)는 하나의 여진어 음절에 복수의 한자가 대응되는 예로, 여진어 어두 음절 '*ʤu'를 표기하는 데 한자 '住, 諸, 朱'가 쓰이고 있다. (3나)는 하나의 한자가 복수의 여진어 음절에 대응되는 예로, 한자 '哈'이 여진어 어말 음절 '*ka, *ga, *ha'를 표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여진역어」에서 여진어의 발음을 적는 데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3다)는 여진어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한자를 이용하여 여진어 단어의 음절을 표기한 예이다. 「여진역어」에서 여진어 어두 음절 '*gu'는 '古剌哈(*gulha)[靴], 古申(*gusin)[三十]' 등과 같이 주로 '古'로 표기되었고, 어중 음절 '*li'는 '阿里庫(*aliku)[盤], 兀里恩(*ulin)[財]' 등과 같이 주로 '里'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3다)에서는 여진어 단어의 뜻에 이끌려 같은 음절을 각기 '國'과 '立'으로 적고 있음이 주목된다.

「여진역어」의 한자 주음 방식은 여진어의 발음을 온전히 복원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어제증정청문감』 서문에서는 그동안 언어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음을 일관되게 적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글자를 대응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뜻에 이끌려 적절하지 않은 한자를 쓰거나

4) 현존하는 「여진역어」의 이본은 크게 을종과 병종으로 구분된다. 을종 「여진역어」는 '雜字(대역어휘부)'와 '內文(표문의 문례)'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진대자가 함께 실려 있으나, 병종 「여진역어」는 '雜字'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진대자가 실려 있지 않다.

5) 각 한어에 대응되는 여진어 단어의 재구형은 모두 愛新覺羅 烏拉熙春, 『明代の女眞人: 『女眞譯語』から『永寧寺記碑』へ』,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9를 참고하였다.

한자에 이끌려 그 뜻을 잘못 풀이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으며,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三合切音을 고안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진역어」의 한자 표기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대표하는 예로 볼 수 있다.

(4) 가. 옛일을 살펴보니 말과 문자의 전함이 곳에 따라, 때에 따라, 대대로 변하여 고치지 않을 수 없다. 그 會通함을 살펴보면, 오직 음과 뜻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다. (말을 문자로) 옮길 때 글자의 음을 알지 못하여 잘못을 저지르거나 글자의 뜻을 억지로 구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있었다.[6] 〈어제증정청문감 서:1a-1b〉

나. 항목마다 첫머리에 만주어를 쓰고서 그 곁에 소리에 맞춘 한자를 합하게 하여, 혹은 한 글자 혹은 二合字나 三合字의 切音을 맞추어 연이어 읽기에 조금도 잘못을 저지르는 바 없게 하였기 때문에 글자에 미혹되어서 그 소리를 얻지 못하는 일이 드물게 되었다.[7] 〈어제증정청문감 서:8a-8b〉

그러나 「여진역어」에서 여진어를 적는 데 쓰인 한자 중 일부는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에 대한 三合切音字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여진역어」에서 비교적 일관된 표기 양상을 보이는 한자를 꼽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여진역어」와 『어제증정청문감』에 모두 쓰인 주음 한자

주음 한자	여진어 음절	만주어 음운
弗	fu, fə	f(e)
佛	fə	f(o)
伯	bə, bai, boi	b(e)

6) julge be kimcici. gisun leolen bithe hergen i ulahangge. ba be tuwame. erin be dahame. jalan jalan de kūbulime halarakū ome muterakū. terei acanara hafunara be tuwaki seci. damu mudan jurgan juwe hacin be oyonggo obuhabi.. ubaliyambure de oci. hergen i mudan be baharakū ofi. tašarabumbime. inu hergen i jurgan be murime baihai ele tašarabuhangge bi..

7) hacin aname ujude manju gisun arafi. dalbade mudan de acabure nikan hergen kamcibume. eici emu hergen. eici juwe acangga. ilan acangga hergen i ešeme mudan acabume. holbome hūlara de. heni majige tašarara ba akū obure jakade. hergen de farfabufi. terei mudan be baharakūngge komso ohobi..

珀	bai	p(e)
塞	sai, sə	s(e)
剌/喇	la, ra	r(a)
里/哩	li, ri	r(i)
勒	lə, rə	l(e)
魯	lu, ru	l(u)
羅	lo, ro	l(o)
納	na	n(a)
卓	ʤo	j(o)

이외에 각 한자가 일정한 여진어 음절에 정연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진역어」에 실린 여진어 한자 표기 가운데 일부가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 삼합절음 표기에 쓰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5) 가. [天] 阿卜哈(*abuga), [兄] 阿渾溫(*ahun)
나. [門] 都哈(*duka),[8] [四] 都因(*dujin)
다. [虎] 塔思哈(*tasha), [差使] 塔苦剌(*takura)

(5)의 '阿, 都, 塔'은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에서도 만주어 'a, d(u), t(a)'를 표기하는 데 쓰인 글자이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이 기존 한자 주음 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고안된 것은 맞으나 그것과 완전히 독립되어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한자를 이용한 외국어 표기의 전통을 기반으로 성립된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3) 한자를 이용한 만주어 표기와 삼합절음

『어제증정청문감』 이외에 한자를 이용하여 만주어의 발음을 표기하고자

8) (3나)의 '都哈(*duha)[腸]'와 (4나)의 '都哈(*duka)[門]'는 주음 한자로는 구분되지 않으나, 대응되는 여진대자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보인다.

한 문헌으로는 『滿漢同文類集』(17세기 중엽)[9], 『滿漢事類集要』(1699), 『淸文啓蒙』(1730), 『欽定淸漢對音字式』(1772)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 문헌에 보이는 한자 주음 방식은 直音과 反切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만한동문유집』, 『만한사류집요』의 경우 기존의 한자 주음에서는 사용된 바 없는 특수한 보조 기호(일종의 'diacritic')를 사용하여 만주어의 음운 구조를 더 정확히 나타내고자 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만한동문유집』을 중심으로 이들 보조 기호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만한동문유집』에 쓰인 보조 기호로는 '△, ◦, ㆍ, ㅣ'를 들 수 있다.[10]

(6)	가.	蒿葉	soroko	索羅△科
	가'.	黃鼠	solohi	索羅欺
	나.	天	abka	阿卜◦搭
	나'.	葉子	abdaha	阿卜打哈
	다.	正月	aniya biya	阿你牙、必牙

'△'은 만주어 'l'과 'r'을 구분하기 위한 보조 기호로 (6가)와 같이 만주어 'r'을 나타내는 한자의 오른편에 적힌다. 「여진역어」와 마찬가지로 『만한동문유집』에서도 만주어 'l'을 적는 글자와 'r'을 적는 글자가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11] 따라서 'r'을 나타내는 한자의 오른편에 특수한 기호를 부여하여

9) 成百仁은 『만한동문유집』의 만주자 필체가 順治 연간의 판본에서 볼 수 있는 필체와 유사하다는 점, 『同文類解』(1748)의 발문에 언급된 사역원 청학서 『物名』이 『만한동문유집』을 底本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만한동문유집』의 표지 서명이 『通文館志』(1720) 권8에 보이는 사역원 청학서 『同文類集』(1691)과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책의 간행 시기를 順治 연간(1643~1661)으로 추정하였다. 成百仁,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 『東方學志』 52, 延世大 國學硏究院, 1986.

10) 『만한사류집요』에 쓰인 보조 기호의 기능은 『만한동문유집』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단어 경계를 표시하는 데 '◦'이 쓰이고 'ㆍ'는 쓰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만한동문유집』에 쓰인 보조 기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혜, 「청대 만주어 사전의 한자 주음 변화: 《滿漢同文類集》을 중심으로」, 『한국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 학술논문집』, 한국언어학회, 2014 참고.

11) 위의 글. 이러한 글자의 예로는 '而(-r/-l), 拉(la/ra), 羅(lo/ro), 勒(le/re), 立(li/ri)'가 있다. 이 가운데 '羅, 勒, 立'의 경우 「여진역어」에서도 여진어의 비슷한 음을 적는 데 쓰였음이 주목된다(〈표 1〉 참고).

'l'을 나타내는 것과 구분하고자 한 것이다.[12]

'ㅇ'는 만주어 어중에서 자음 'b'가 다른 자음 앞에 올 때 쓰이는 보조 기호로 (6나)와 같이 'b'를 나타내는 한자의 오른편에 적힌다. 다만 (6나')에서처럼 이러한 환경에 놓인 모든 예에 'ㅇ'가 쓰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만한동문유집』에서 'b'와 다른 자음의 연쇄는 모두 32번 나타는데 'ㅇ'는 그 가운데 20개 예에서만 나타난다.[13]

'ㆍ, ㅣ'는 각기 단어 경계와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보조 기호로 'ㆍ'는 단어 경계에 놓인 한자의 오른쪽 아래, 'ㅣ'는 같은 음절에 속한 한자 연쇄의 오른편에 적힌다(6다). 만주어의 경우 하나의 형태소가 여러 음절로 이루어지거나 여러 개의 음운 단어가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처럼 단어 경계나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보조적인 표기 수단이 동원되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문계몽』, 『흠정청한대음자식』의 경우 본문의 만주어를 대개 直音에 가까운 방식으로 표기하였음에도 보조 기호와 같은 다른 표기 수단을 동원하지 않아 『만한동문유집』, 『만한사류집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주어의 발음이 덜 정확히 반영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문헌의 경우 만주어 음절에서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히 十二字頭의 末尾音을 특정 한자로

12) 외국어의 발음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 있어서 'r'을 'l'에 비해 특수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향은 그 연원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隋唐 시기의 불경 한역 자료를 살펴보면 'l'로 시작하는 발음을 지닌 한자에 입구 부수를 더하여 'r'로 시작하는 인도어의 발음을 나타내는 일이 이미 이 시기부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囉'와 '哩'가 있다. W. South Coblin, "A compendium of phonetics in Northwes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7, 1994, p.126; p.237. 비슷한 현상이 베트남에서도 꽤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Nguyễn은 이때의 입구 부수를 'l'에서 'r'로의 발음 전환을 나타내는 일종의 구별기호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Đình-Hoà Nguyễn, "Graphemic borrowings from Chinese: The case of chữ nôm-Vietnam's demotic script,"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61(2), 1990.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 입구 부수는 이른바 '탈의미화(desemanticization)' 기능을 하는 입구 부수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각주 17 참고.

13) 김혜, 앞의 글. 만주어에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은 대개 어중에서 다른 자음 앞에도 올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유독 'b'에 대해서만 특별한 기호를 부여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는 만주어의 음절 구조 제약을 포함한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일관되게 표기하려는 경향이 확인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14]

〈표 2〉『청문계몽』과『청한대음자식』의 十二字頭 末尾音 표기

자두	만주어 음운	청문계몽	청한대음자식
제1字頭	-a	呀, 窪, 亞	反切 표기 없음
	-e	哦, 噎	
	-i	衣	
	-o	窩	
	-u	屋	
	-ū	窩	
제2字頭	-i	衣	衣
제3字頭	-r	尔	爾
제4字頭	-n	因	恩, 音
제5字頭	-ng	英	英, 斡, 昂
제6字頭	-k	珂	克
제7字頭	-s	思	斯
제8字頭	-t	呲	特
제9字頭	-b	鋪	布
제10字頭	-o	幽	優, 褞, 敖
제11字頭	-l	撈	勒
제12字頭	-m	模	木

落合守和는 이러한 표기 경향에 대해 만주어 음절 구조와 한어 음절 구조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모와 운모의 전통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만주어의 발음을 더 정확히 표기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한 바 있다.[15] 그러나 십이자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진역어」와 마찬가지로 直音에 가까운 방식으로 만주어 음절을 표기하였으며, 같은 만주어 음절에 대해 복수의 한자가 대응되거나 같은 한자가 여러 만주어 음절에 대응되는 예가 적지 않다

14) 落合守和, 「增訂清文鑑十二字頭の三合切音: 附欽定西域同文志注解稿二阿克蘇属・烏什属地山水名」, 『静岡大学教養部研究報告 人文・社会科学篇』 20(2), 1985.
15) 같은 글.

는 점에서, 음소 수준의 완전한 분절적 표기를 의도하였다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어제증정청문감』(1771)의 三合切音은 이러한 노력의 한 결실로 볼 수 있다. 삼합절음이란 최대 세 개의 한자를 조합하여 한 음절의 소리를 더 정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고안한 방법이다. 삼합절음은 『欽定同文韻統』(1750)과 『欽定西域同文志』(1763)에서도 외국어의 발음을 적는 데 사용된 바 있는데, 『흠정동문운통』에서는 티베트어('西番')와 인도어('天竺')를 기록하는 데 삼합절음을 사용하였으며, 『흠정서역동문지』에서는 서북 변방('蒙古, 新疆, 青海' 등)의 지명, 인명 등을 기록하는 데에 삼합절음을 사용하였으므로,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 주음과는 표기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삼합절음은 反切의 전통에서 비롯된 음절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에서 벗어나 음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려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의 만주어 한자 표기 방식과 구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삼합절음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원조비사』에서는 小注字를 이용하여 直音과 反切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몽골어의 음절 배열을 나타내고자 하였고, 「여진역어」에서는 여진어의 음절 말음 '-l, -r'을 적을 때 일부 특수한 한자를 사용하였다.[16] 『만한동문유집』과 『만한사류집요』에서는 만주어의 발음을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특수한 보조 기호를 사용하였으며, 『청문계몽』과 『흠정청한대음자식』에서는 십이자두의 末尾音을 특정 한자로만 일관되게 나타내고자 하였다.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은 이러한 노력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삼합절음이 기존의 한자 주음 방식이 지닌 한계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었다. 삼합절음의 체계를 들여다보면 음절 핵으로 어떤 모음이 오는지에 따라 초성 자음을 나타내는 글자를 달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삼합절음이 완전히 음소적인 표기를 의도하였다면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초성 자음을 다른 글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삼합절음의 한 글자가 만주자 표기의 두 자소에 대응되는 일이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러한 양

16) 여진어의 음절 말음 '-l'을 나타내는 데는 '羅, 勒, 魯, 里, 剌'과 '-n' 운미자가 쓰였으며, 음절 말음 '-r'을 나타내는 데는 '兒, 里, 魯'가 쓰였다. 愛新覺羅 烏拉熙春, 앞의 책, 120-122면.

상은 형태소 음절 문자인 한자를 발음 기호로 이용하다 보니 생겨난 문제로 생각된다. 삼합절음과 만주자 표기의 대응에 대해서는 3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끝으로 『어제증정청문감』에 보이는 十二字頭 삼합절음 표기와 『청문계몽』에 보이는 十二字頭 직음 표기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권1의 첫 부분에 일종의 음절 대응표에 해당하는 「三合漢字十二字頭」를 제시하여 삼합절음의 표기 원리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십이자두에 대응되어 쓰인 『청문계몽』의 直音字와 『어제증정청문감』의 三合切音字 가운데 겹치는 글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문헌에 쓰인 주음자의 대응 관계를 십이자두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7]

〈표 3〉 『청문계몽』의 直音字와 『어제증정청문감』의 三合切音字의 비교

	a	e	i	o	u	ū
청문계몽	阿	惡	衣	窩	屋	窩
증정청문감	阿	額	伊	鄂	烏	諤
	na	ne	ni	no	nu	nū
청문계몽	那	諾	呢	挪	奴	挪

17) 기본적으로는 두 문헌에 완전히 같은 글자가 쓰인 경우만을 고려 대상으로 삼았으나, 입구 부수가 있는 글자와 없는 글자 간의 차이는 무시하였다. 〈표 3〉에서 음영 처리한 글자 가운데 '尼:呢, 羅:囉, 魯:嚕, 密:嘧, 約:喲, 匝:咂'가 여기에 속한다. 한자를 이용하여 외국어의 발음을 표기할 경우 기존의 글자에 입구 부수만을 더한 형성자를 이른바 '音譯字'로 쓰는 일이 흔히 있었는데, 이때 두 글자는 대개 같은 소리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洪武正韻』에서 '尼'와 '呢'의 발음은 모두 '年題切'로 표시되어 있으며, '羅'와 '囉'의 발음은 모두 '郎何切'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音譯字'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입구 부수는 그 글자가 소리만을 나타내는 것임을 보여주는데, Handel은 이러한 입구 부수의 기능을 '탈의미화(desemanticization)'라는 용어로 지칭한 바 있다. 입구 부수의 이러한 기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Handel은 광둥어의 문법 형태소를 표기하는 글자 '嘅, 咁, 咗'를 예로 들었으며, 이외에도 영어 'coffee'에 대한 한자 音譯 표기 '咖啡'를 예로 들 수 있다. Zev Handel,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2019, pp.58-59 참고. 위에서 열거한 한자의 현대 한어 병음을 『漢典』(www.zdic.net)에서 찾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魯:嚕(성조가 다름)'와 '約:喲(운모가 다름)'를 제외하면 두 글자의 발음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呢	尼	囉	羅	嚕	魯	嘧	密	喲	約	咂	匝
ní ne	ní	luó luō luo	luó	lū	lǔ	mì	mì	yō yo	yuē yāo	zā	zā

증정청문감	納阿	訥額	尼伊	難鄂	努烏	懦諤
	ka	ke	ki	ko	ku	kū
청문계몽	喀	磕	欺	顆	枯	枯
증정청문감	喀阿	珂額	期伊	科鄂	枯烏	軻烏
	ga	ge	gi	go	gu	gū
청문계몽	噶	哥	鷄	郭	孤	孤
증정청문감	噶阿	歌額	基伊	鍋鄂	沽烏	觚烏
	ha	he	hi	ho	hu	hū
청문계몽	哈	呵	稀	豁	呼	呼
증정청문감	哈阿	呵額	希伊	和鄂	祜烏	呼烏
	ba	be	bi	bo	bu	bū
청문계몽	八	撥	逼	撥	不	撥
증정청문감	巴阿	伯額	畢伊	玻鄂	補烏	播鄂
	pa	pe	pi	po	pu	pū
청문계몽	叭	坡	批	坡	鋪	坡
증정청문감	琶阿	珀額	毘伊	坡鄂	鋪烏	潑諤
	sa	se	si	so	su	sū
청문계몽	薩	塞	西	梭	蘇	梭
증정청문감	薩阿	塞額	西伊	莎鄂	蘇烏	索諤
	ša	še	ši	šo	šu	šū
청문계몽	紗	賒	詩	說	書	說
증정청문감	沙阿	余額	施伊	碩鄂	舒烏	朔諤
	ta	te	ti	to	tu	
청문계몽	他	呲	梯	脫	禿	
증정청문감	塔阿	特額	梯伊	陀鄂	圖烏	
	da	de	di	do	du	
청문계몽	搭	得	低	多	都	
증정청문감	達阿	德額	氐伊	多鄂	都烏	
	la	le	li	lo	lu	lū
청문계몽	拉	勒	哩	囉	嚕	囉
증정청문감	琍阿	勒額	禮伊	羅鄂	魯烏	洛諤
	ma	me	mi	mo	mu	mū
청문계몽	媽	摸	嘧	摸	模	摸
증정청문감	瑪阿	墨額	密伊	摩鄂	穆烏	幕諤
	ca	ce	ci	co	cu	cū
청문계몽	差	車	七	綽	出	綽
증정청문감	察阿	車額	綽伊	綽鄂	初烏	輟諤
	ja	je	ji	jo	ju	jū

청문계몽	渣	遮	飢	拙	朱	拙
증정청문감	楂阿	遮額	齎伊	卓鄂	諸烏	鐲諤
	ya	ye		yo	yu	yū
청문계몽	呵	噎		喲	淤	喲
증정청문감	鴉阿	葉額		岳鄂	俞烏	約諤
	k'a	k'o	g'a	g'o	h'a	h'o
청문계몽	喀	顆	噶	郭	哈	豁
증정청문감	卡阿	稞鄂	嘎阿	郭鄂	嗑阿	豁鄂
	ra	re	ri	ro	ru	rū
청문계몽	拉	勒	哩	囉	嚕	囉
증정청문감	喇阿	哷額	哩伊	囉鄂	嚕烏	嘓諤
	fa	fe	fi	fo	fu	fū
청문계몽	發	佛	非	佛	夫	佛
증정청문감	法阿	弗額	飛伊	佛鄂	扶烏	拂諤
	wa	we				
청문계몽	窪	窩				
증정청문감	斡阿	倭額				
	tsa	tse	tsi	tso	tsu	
청문계몽	擦	折	呲	蹉	粗	
증정청문감	搽阿	策額	推伊	磋鄂	粗烏	
	dza	dze	dzi	dzo	dzu	
청문계몽	咂	則	茲	柞	租	
증정청문감	匝阿	則額	資伊	侳鄂	租烏	
	ža	že	ži	žo	žu	
청문계몽	饒	熱	日	弱	如	
증정청문감	髯阿	執額	日伊	若鄂	儒烏	
	sy	c'y	jy			
청문계몽	四	吃	智			
증정청문감	思伊	螭伊	之伊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청문계몽』에 쓰인 직음자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어제증정청문감』에서도 삼합절음자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총 132개 字頭 중 36개). 이러한 대응 관계는 『어제증정청문감』의 三合切音字가 아무런 기반 없이 독자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존에 주음자로 쓰이던 글자를 참고하여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외에 『청문계몽』의 직음자와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자가 체계적

으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문계몽』에서는 초성에 연구개음 계열('k, g, h')이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o' 계열과 '-ū' 계열이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 초성에 연구개음 계열이 오는 경우 '-u' 계열과 '-ū' 계열이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 초성에 양순음 계열('b, p, m, f')이 오는 경우 '-e' 계열에도 '-o' 계열과 '-ū' 계열에 쓰이는 글자가 그대로 쓰인다. 그러나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초성에 대응되는 글자가 겹치는 일이 없으며, 대신 연구개음 계열 뒤에 오는 'u'와 'ū'가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

둘째, 『청문계몽』에서는 'l-' 계열과 'r-' 계열에 모두 같은 글자가 대응되어 쓰이지만,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이 두 계열에 서로 다른 글자가 대응되어 쓰인다. 한자 주음에서 'l-' 계열과 'r-' 계열을 같은 글자로 표기하는 경향은 꽤 오랜 연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진역어」나 『만한동문유집』에서도 같은 경향이 확인된다(각주 11 참고). 『어제증정청문감』에서도 'lo, lu'와 'ro, ru'는 부수만 다른 사실상 같은 글자가 대응되고 있는데, 'r' 계열에 입구 부수를 더하여 'l' 계열에 비해 특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 『만한동문유집』과 일치한다(각주 12 참고).

요컨대,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은 전통적인 한자 주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체계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언어의 소리를 보다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어제증정청문감』의 「三合漢字十二字頭」에 나타난 만주어 한자 표기를 중심으로 삼합절음 표기의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어제증정청문감』의 만주어 한자 주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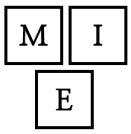
1) 삼합절음의 원리와 체계

(1) 삼합절음의 구성

三合切音은 최소 1개, 최대 3개의 한자로 구성되는데, 각 글자의 배열 방식은 그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만주어 음절의 구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삼합절음을 이루는 각 三合切音字에 관한 용어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落合守和는 삼합절음을 이루는 3개의 한자를 각기 '三合右字, 三合左字, 三合下字'로 명명하고, 이들 각 자소가 만주어 음절의 분절 음소인 '頭子音(Initials, I), 主母音(Medials, M), 末尾音(Endings, E)'에 대응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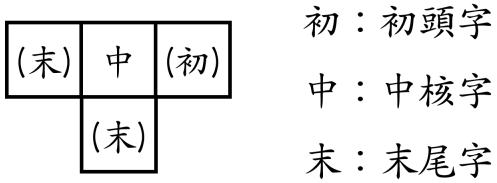
I ：Initials (三合右字)
M：Medials (Principal Vowels) (三合左字)
E ：Endings (三合下字)

〈그림 1〉 삼합절음의 구성(落合守和 1985: 153)

'삼합우자, 삼합좌자, 삼합하자'는 글자가 놓인 위치를 근거로 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삼합절음 표기에서는 한 글자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두 글자가 좌우나 상하로 삼합절음을 이루기도 하여 글자의 위치가 고정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두자음, 주모음, 말미음에 대응되어 쓰이는 삼합절음자가 항상 삼합절음 표기의 오른쪽, 왼쪽, 아래쪽에 적히는 것도 아니다. 삼합절음을 구성하는 각 자소는 만주어 음절의 구조에 따라 세밀하게 운용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삼합절음을 이루는 세 부류의 삼합절음자를 각기 '初頭字, 中核字, 末尾字'라는 용어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는 각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특성이 아닌 각 글자의 배열 방식을 근거로 한 용어이다. 본고에서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삼합절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8) 落合守和, 앞의 글.



〈그림 2〉 삼합절음의 구성(본고의 수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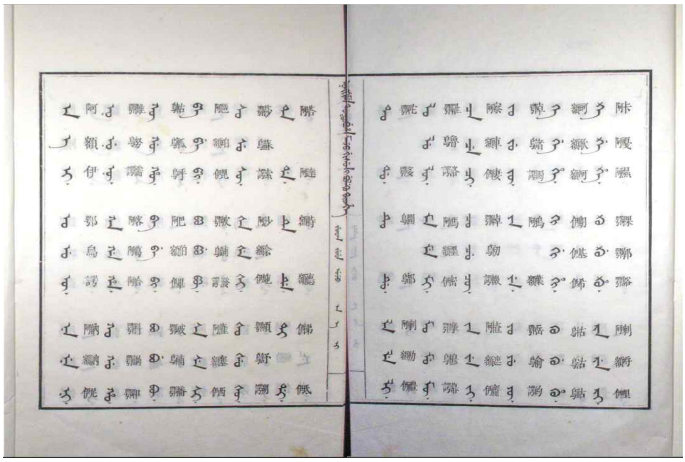
삼합절음은 반드시 하나의 중핵자를 포함하며, 중핵자의 주변에 초두자와 말미자가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 말미자는 음절이 어떤 음소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중핵자의 왼쪽에 적힐 수도 있고 아래쪽에 적힐 수도 있다.[19] 초두자, 중핵자, 말미자는 각기 만주어 음절의 자음(consonant, C) 또는 자음과 주변 모음의 연쇄(CP), 핵모음(vowel, V), 자음(C) 또는 주변 모음(peripheral vowel, P)에 대응된다.

(2) 「삼합한자십이자두」의 구성

다음으로 「三合漢字十二字頭」(이하 십이자두표)의 구성에 대해 언급해 보기로 하자. 『어제증정청문감』 권1의 권두에 제시된 십이자두표는 삼합절음의 원리와 체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19) 초성자·중성자·종성자를 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나타내는 한글 역시 자소를 음절 단위로 조합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삼합절음과 유사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음운론적 측면에서 각 자소가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글과 삼합절음은 차이를 보인다. /oo/와 같이 동일한 모음이 연쇄된 복모음(geminate vowel)의 경우, 후행 모음이 주변 모음이다.

한글		삼합절음자	
문자적 관점	음운적 관점	문자적 관점	음운적 관점
초성자	자음	초두자	자음, 주변 모음
중성자	모음	중핵자	핵모음
종성자	자음	말미자	자음, 주변 모음



〈그림 3〉『어제증정청문감』 권1「삼합한자십이자두」

십이자두표는 'a uju, ai uju, ar uju, an uju, ang uju, ak uju, as uju, at uju, ab uju, ao uju, al uju, am uju'의 1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목마다 1엽 반 정도의 분량을 가지며, 한 항목이 끝나면 반 엽을 비우므로 전체 분량은 24엽이다. 각 항목에 해당하는 모든 음절에 대해 만주자와 삼합절음 표기가 좌우로 나열되어 있다. 항목당 적게는 112개, 많게는 133개의 삼합절음 표기가 제시된다.

삼합절음 표기는 중핵자를 기준으로 '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의 순서로 배열된다. 중핵자 또는 중핵자와 말미자의 기본 조합이 먼저 나열되고, 뒤이어 초두자가 'n, {k, g, h}[1], b, p, s, x, {t, d}, l, m, c, j, y, {k, g, h}[2], {k′, g′, h′}, w, ts, dz, z, sy, c′y, jy'의 순서로 기본 조합에 더해진다. 예컨대 〈그림 3〉에 보이는 'a uju'에서는 '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의 기본 조합이 나열된 다음 'n-' 그룹에 해당하는 '納阿[na], 訥額[ne], 尼伊[ni], 難鄂[no], 努烏[nu], 懦鄂[nū]'가 나열된다.

이 가운데 {k, g, h}와 {t, d}, {k′, g′, h′} 그룹은 함께 묶여서 나열된다는 점이 특이한데, 특히 {k, g, h} 그룹의 경우 '阿[a], 鄂[o], 烏[u]'와 조합된 {k, g, h}[1]은 'n-'과 'b-' 사이에 배열되고, '額[e], 伊[i], 鄂[ū]'와 조합된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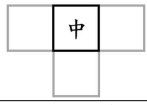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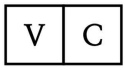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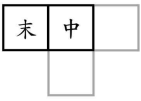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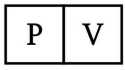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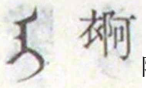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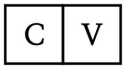
g, h}[2]는 'y-'와 {k′, g′, h'} 사이에 배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a uju'의 경우 '喀阿[ka], 歌額[ga], 呵額[ha], 科鄂[ko], 鍋鄂[go], 和鄂[ho]…'와 '珂額[ke], 歌額[ge], 呵額[he], 期伊[ki], 基伊[gi], 希伊[hi]…'가 각기 배열되는 식이다. 이러한 배열 방식은 『청문계몽』의 십이자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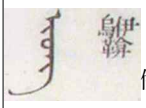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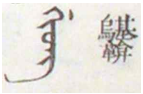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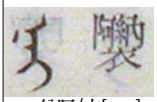
종합하자면 십이자두표는 총 24엽 분량으로 12개 항목에 대한 총 1,429개 만주어 음절과 그에 대응하는 삼합절음 표기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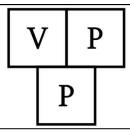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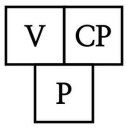
(3) 삼합절음의 유형

십이자두표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를 각 글자의 배열 방식과 대응되는 만주어의 음절 구조에 따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삼합한자십이자두」에 나타난 삼합절음의 유형

<table>
<tr><th rowspan="2">字素 數</th><th colspan="2">유형</th><th rowspan="2">예</th><th rowspan="2"></th></tr>
<tr><th>문자적 구성</th><th>음운적 구성</th></tr>
<tr><td>1字</td><td>중 유형
  </td><td>V 유형
  </td><td> 
阿[a]</td><td>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td></tr>
<tr><td rowspan="3">2字</td><td>초중 유형
  </td><td>CV 유형
  </td><td> 
納阿[na]</td><td>納阿[na], 訥額[ne], 尼伊[ni] …</td></tr>
<tr><td rowspan="2">중말 I 유형
  </td><td>VP 유형
  </td><td> 
衣[ai]</td><td>阿衣[ai], 阿傲[ao]</td></tr>
<tr><td>VC I 유형
  </td><td> 
阿安[an]</td><td>阿安[an], 額恩[en], 伊因[in] … 阿昂[ang], 鞥[eng], 伊英[ing] …</td></tr>
</table>

	중말Ⅱ 유형 中 末	VCⅡ 유형 V C	 阿/呼[ar]	阿/呼[ar], 阿/克[ak], 阿/斯[as], 阿/特[at], 阿/補[ab], 阿/勒[al], 阿/穆[am] …
3字	초중말 유형 中 初 末	CVC 유형 V C C	 納阿/呼[nar]  納阿/安[nan]	納阿/呼[nar], 納阿/安[nan], 納阿/昂[nang], 納阿/克[nak], 納阿/斯[nas], 納阿/特[nat], 納阿/補[nab], 納阿/勒[nal], 納阿/穆[nam] …
		PVC 유형 V P C	 伊烏/韓[iong]	伊烏/韓[iong]
		CPVC 유형 V CP C	 基烏/韓[giong]	期烏/韓[kiong], 基烏/韓[giong], 希烏/韓[hiong], 綾烏/韓[ciong], 齎烏/韓[jiong], 西烏/韓[siong], 尼烏/韓[niong], 禮烏/韓[liong]
		CVP 유형 V C P	 納阿/衣[nai]	納阿/衣[nai], 喀阿/衣[kai], 巴阿/衣[bai] … 納阿/傲[nao], 喀阿/傲[kao], 巴阿/傲[bao], 摩鄂/傲[moo] …
		PVP 유형		伊烏/衣[ioi]

			伊烏/衣[ioi]	
		CPVP 유형 	 期烏/衣[kioi]	期烏/衣[kioi], 基烏/衣[gioi], 希烏/衣[hioi], 綺烏/衣[cioi], 齎烏/衣[jioi], 西烏/衣[sioi], 尼烏/衣[nioi], 禮烏/衣[lioi]

삼합절음의 유형은 자소 수, 문자적 구성, 음운적 구성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소 수에 따라서는 1자 유형, 2자 유형, 3자 유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며, 문자적 구성에 따라서는 중 유형, 초중 유형, 중말Ⅰ 유형, 중말Ⅱ 유형, 초중말 유형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된다. 음운적 구성을 기준으로 하면 총 10가지의 하위 유형이 도출되는데, 여기에서 삼합절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만주어 음절 구성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다.

문자적 구성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중말Ⅰ 유형과 중말Ⅱ 유형의 구분이다. 두 개의 글자로 구성된 CV, VP, VCⅠ, VCⅡ 유형 가운데 두 글자가 상하로 배열된 것은 VCⅡ 유형이 유일하며, 이외의 다른 유형은 모두 두 글자가 좌우로 배열되어 있다. 이때 동일한 VC 구조의 음절을 표기하더라도 말미자가 '-n, -ng'에 해당하면 글자를 좌우로 배열하고(중말Ⅰ 유형), 말미자가 '-r, -k, -s, -t, -b, -l, -m'에 해당하면 글자를 상하로 배열하였다(중말Ⅱ 유형). 전자의 말미자는 한어의 韻尾를 취한 글자이고, 후자의 말미자는 한어의 聲母를 취한 글자라는 점에서, 각 한자가 나타내는 분절음의 특성을 삼합절음의 구조에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20]

20) 한어의 운미를 취한 글자는 모두 비음 계열로서 이른바 양성 운미를 지닌 글자이다. 한어의 경우 역사적으로 파열음 계열의 운미가 탈락하고 양성 운미 중 /m/이 /n/으로 합류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 한어에서는 음절 말에 올 수 있는 자음이 /n/과 /ŋ/으로만 한정되는 음절 구조 제약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어의 운미를 취한 글자와 한어의 성모를 취한 글자를 서

세 글자로 이루어진 초중말 유형 가운데 음절 구성에 주변 모음이 포함된 5개 유형(PVC, CPVC, CVP, PVP, CPVP)은 삼합절음의 창의적인 운용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이들 유형은 'ang uju'와 'ai uju'의 끝에 배열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CPVC, CPVP 유형의 경우 주변 모음을 포함한 모든 분절음에 한 개씩의 글자를 배당하면 네 개의 글자가 필요하여 세 글자로는 음절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다. 이에 따라 CPVC, CPVP 유형에서는 하나의 초두자로 자음과 주변 모음의 연쇄를 나타내는데, 이는 삼합절음이라는 틀 안에서 최대한 다양한 음절을 나타내고자 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삼합절음은 반절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나, 분절음을 더욱 세분하여 나타내고자 한 창의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삼합절음은 한어의 聲母(또는 聲母+韻頭), 韻腹, 韻尾에 대응되는 만주어 음절의 요소에 각기 하나의 글자를 대응시킴으로써 성모와 운모만을 표기했던 반절에서 진일보하였으며, 이전까지의 주음 방법을 통해서는 표기할 수 없었던 주변 모음까지도 세밀하게 표기해 낼 수 있었다.

(4) 대응자 선택의 원리

끝으로 삼합절음을 구성하는 초두자, 중핵자, 말미자가 선택된 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삼합절음자 가운데 중핵자인 '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는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초두자와 말미자는 중핵자가 무엇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글자가 선택된다.

우선 일반적으로 중핵자는 여섯 개 글자('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가 일관되게 사용되는데, 'k-, g-, h-'의 경우 중핵자인 '烏[u]'와 '鄂[ū]'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烏[u]'로만 표기된다. 이에 따라 '枯烏[ku], 沽烏[gu], 祜烏[hu]'와 '軥烏[kū], 觚烏[gū], 呼烏[hū]'는 중핵자가 아니라 초두자를 통해 변별된다는 예외를 보인다.[21]

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데는 이러한 당시 한어의 음절 구조 제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21) 이는 당시의 표기자들이 모음보다는 자음을 통해 두 소리의 변별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표 5〉 'ku, gu, hu, kū, gū, hū'의 삼합절음 표기

	u	ū
k-	枯烏[ku]	軻烏[kū]
g-	沽烏[gu]	觚烏[gū]
h-	祜烏[hu]	呼烏[hū]

이러한 예외는 'bū-'에서도 나타난다. 'bū-'를 포함한 음절은 대개 일반적 원리에 따라 '播謣'로 표기된다. 그러나 'bū'와 'būn'에서는 예외적으로 '播鄂'로 표기된다.[22]

〈표 6〉 'bū-'의 삼합절음 표기

bū	būi	būr	būn	būng	būk
播鄂	播謣/衣	播謣/呼	播鄂/恩	播謣/鞚	播謣/克
būs	būt	būb	būo	būl	būm
播謣/斯	播謣/特	播謣/補	播謣/歐	播謣/勒	播謣/穆

중핵자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초두자와 말미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초두자는 'n-, k-, g-, h-, b-, p-, s-, š-, t-, d-, l-,

있다. 'k-, g-, h-'에 대한 삼합절음 표기는 중핵자의 쓰임뿐만 아니라 배열 순서에서도 다른 계열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이때의 변별이 문자론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인지 음운론적 차원까지 고려한 것인지는 해당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枯:軻, 沽:觚, 祜:呼'가 운서에서 대개 같은 음으로 처리되는 글자라는 점도 음운론적 판단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동음의 한자일지라도 두 글자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중국 한자음에서는 같은 음으로 여겨지는 한자가 만주인에게는 음소 차원에서 변별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 삼합절음 표기에 대한 정확한 음운론적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자료를 고려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성백인은 'ū'의 음가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정리한 바 있는데, 그 중 服部四郎는 'kū, gū, hū'와 'ku, gu, hu'의 표기상의 대립을 만주어 자음 /q, g, ɣ/와 /k, g, x/의 음운론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성백인, 『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1999, 570-574면; 服部四郎, 「母音調和と中期朝鮮語の母音體系」, 『言語の科學』 6, 1975.

22) '鄂'가 대부분 '-o'를 적는 데 쓰인 중핵자임을 고려하면, 〈표 6〉으로부터 당시의 표기자들이 'bū'와 'būn'의 발음을 [bo]와 [bon]에 가깝게 인식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운서에서 '鄂:謣'은 대개 같은 음으로 처리되므로, 이들의 관계가 문자론적 차원에만 머무는 것인지 음운론적 차원까지 고려한 것인지는 각주 21에서와 마찬가지로 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m-, c-, j-, y-, k´-, g´-, h´-, r-, f-, w-, ts-, dz-, ž-'의 모든 유형이 중핵자의 음가에 따라 서로 다른 글자로 표기된다.

〈표 7〉 중핵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b-'와 's-'의 초두자

	a	e	i	o	u	ū
b-	巴阿[ba]	伯額[be]	畢伊[bi]	玻鄂[bo]	補烏[bu]	播鄂[bū]
s-	薩阿[sa]	塞額[se]	西伊[si]	莎鄂[so]	蘇烏[su]	索鄂[sū]

〈표 7〉은 'b-'와 's-'에서 나타나는 초두자와 중핵자의 조합을 보인 것이다. 같은 행 내에서 초두자는 후행하는 중핵자의 음가를 고려하여 달리 선택되어 있다. 'b-'의 경우 '巴, 伯, 畢, 玻, 補, 播'가 초두자로 쓰이며, 's-'의 경우 '薩, 塞, 西, 莎, 蘇, 索'가 초두자로 쓰인다.

〈표 8〉 중핵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n'과 '-ng'의 말미자

	a, o	e, u, ū	i
-n	阿安[an] 鄂安[on]	額恩[en] 烏恩[un] 諤恩[ūn]	伊因[in]
-ng	阿昂[ang] 鄂昂[ong]	額韺[eng] 烏韺[ung] 諤韺[ūng]	伊英[ing]

초두자가 중핵자에 따라 여섯 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쓰인 것과 달리, 말미자는 중핵자가 나타내는 모음이 양성모음인지 음성모음인지 중성모음인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표 8〉은 'an uju'와 'ang uju'의 말미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두 경우 말미자는 '阿[a], 鄂[o]' 뒤에서는 '安'과 '昂'으로, '額[e], 烏[u], 鄂[ū]' 뒤에서는 '恩'과 '韺'으로, '伊[i]' 뒤에서 '因'와 '英'으로 달리 선택된다.

〈표 9〉 중핵자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o'와 '-i'의 말미자

	a, o	e, u, ū	i

-o	阿傲[ao] 鄂傲[oo]	額歐[eo] 烏歐[uo] 諤歐[ūo]	伊優[io]
-i	阿衣[ai], 額衣[ei], 伊衣[ii], 鄂衣[oi], 烏衣[ui], 諤衣[ūi]		

〈표 8〉과 같은 양상은 주변 모음을 포함한 음절 구성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표 9〉의 'ao uju'에서 말미자는 중핵자에 따라 '傲, 歐, 優'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반면에 'ai uju'의 말미자는 중핵자와 관련 없이 모두 '衣'자로 통일되어 나타난다. 〈표 7-9〉는 삼합절음자가 음절 단위의 실제 만주어 발음을 고려하여 선택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일부 초두자는 말미자에도 쓰이는 일이 있다. '呼額/呼[rer], 特額/特[tet], 補烏/補[bub], 勒額/勒[lel], 穆烏/穆[mum]'의 여섯 유형은 초두자와 말미자가 같은 글자로 표기된다. 반면에 말미자 가운데 '安·恩·因, 昂·斡·英, 克, 斯'는 십이자두표 내에서 초두자로 쓰이지 않는다.[23]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삼합절음 표기를 구성하는 초두자, 중핵자, 말미자의 종류와 개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초두자, 중핵자, 말미자의 개수와 종류

유형	개수	종류
초두자	125	納·訥·尼·難·努·懦[n-], 喀·珂·期·科·枯·軻[k-], 噶·歌·基·鍋·沽·觚[g-], 哈·呵·希·和·祜·呼[h-], 巴·伯·畢·玻·補·播[b-], 琶·珀·毘·坡·鋪·潑[p-], 薩·塞·西·莎·蘇·索[s-], 沙·余·施·碩·舒·朔[š-], 塔·特·梯·陀·圖[t-], 達·德·氐·多·都[d-], 琍·勒·禮·羅·魯·洛[l-], 瑪·墨·密·摩·穆·幕[m-], 察·車·綽·綽·初·輟[c-], 楂·遮·齋·卓·諸·鐲[j-], 鴉·葉·岳·偸·約[y-], 卡·稞[k'-], 嘎·郭[g'-], 嗑·豁[h'-], 喇·呼·哩·囉·嚕·嘓[r-], 法·弗·飛·佛·扶·拂[f-], 斡·倭[w-],

23) 그러나 『어제증정청문감』의 실제 삼합절음 표기에서는 대개 말미자로만 쓰이는 '斯'가 단독으로 하나의 삼합절음을 구성하는 등 예외적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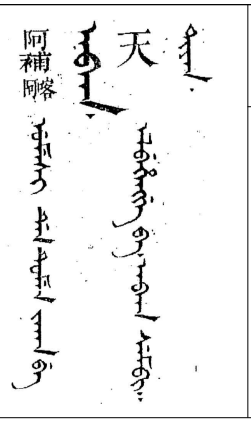
24) '期烏/衣[kioi], 基烏/衣[gioi], 希烏/衣[hioi], 綽烏/衣[cioi], 齋烏/衣[jioi], 西烏/衣[sioi], 尼烏/衣

		擦·策·推·磋·粗[ts-], 匝·則·資·侳·租[dz-], 髽·執·日·若·儒[ž-], 思[sy-], 螭[c'y-], 之[jy-][24]
중핵자	6	阿[a], 額[e], 伊[i], 鄂[o], 烏[u], 鄂[ū]
말미자	17	衣[i], 哷[-r], 安·恩·因[-n], 昂·鞅·英[-ng], 克[-k], 斯[-s], 特[-t], 補[-b], 傲·歐·優[-o], 勒[-l], 穆[-m]
합계	148	-

2) 『어제증정청문감』의 삼합절음 표기

이 절에서는 앞서 분석한 삼합절음의 원리와 체계를 토대로 『어제증정청문감』에 쓰인 삼합절음 표기의 실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어제증정청문감』의 미시 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어제증정청문감』의 미시 구조

<table>
<tr><td rowspan="2"> 
天
阿補阿喀</td><td>가</td><td>나</td><td>다</td><td>라</td></tr>
<tr><td colspan="4">마(雙行)</td></tr>
<tr><td colspan="5">가: 만주어 표제어에 대한 한자 주음(三合切音)
나: 만주어 표제어
다: 만주어 표제어의 한어 대역어
라: 한어 대역어에 대한 만주자 주음
마: 만주어 詮釋(雙行, 왼쪽 행부터)</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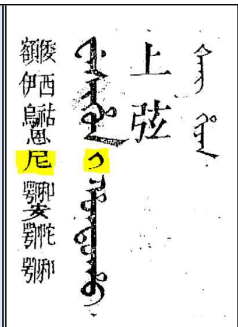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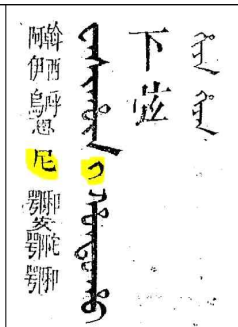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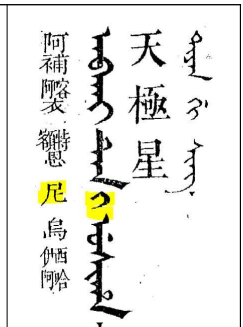
[nioi], 禮烏/衣[lioi]' 등에 쓰이는 초두자 '期, 基, 希, 綺, 齎, 西, 尼, 禮'는 '期伊/衣[kii], 基伊/衣[gii]' 등 '-ii'를 포함한 삼합절음 표기에 쓰이는 초두자와 같으므로 생략하였다. 다만 초두자와 말미자로 모두 쓰이는 '哷, 特, 補, 勒, 穆'는 초두자와 말미자에 중복으로 제시하였다.

(가)는 (나)의 만주어 표제어의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이고, (라)는 반대로 (다)의 한어 대역어의 발음을 만주자로 옮긴 것이다. (마)는 (나)의 표제어를 만주어로 詮釋한 부분이다. 이 가운데 삼합절음이 쓰인 곳은 (가)이다.

삼합절음의 실제 표기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본고에서는『어제증정청문감』권1에 수록된 281개 표제어에 나타난 만주자 표기와 삼합절음 표기의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삼합절음이 십이자두표에 제시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부 표제어의 한자 주음에는 십이자두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삼합절음 표기가 사용되어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는 대개 만주자와 1:1로 대응하는 轉字(transliteration) 표기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만주어의 발음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轉寫(transcription) 표기의 성격도 일부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n'에 후행하는 속격조사 'i'의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2〉『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의 실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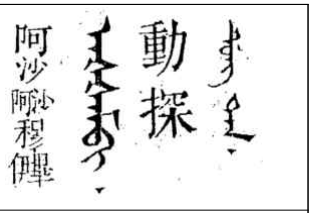
원문			
표제어	wesihun i hontoho 〈1:05a〉	wasihvn i hontoho 〈1:05a〉	abkai ten i usiha 〈1:06a〉
삼합절음 표기	we-si-hun i hon-to-ho 倭額-西伊-祜烏/恩 尼 和鄂/安-陀鄂-和鄂	wa-si-hvn i hon-to-ho 斡阿-西伊-祜烏/恩 尼 和鄂/安-陀鄂-和鄂	ab-kai ten i usi-ha 阿/補-客阿/衣 特額/恩 尼 烏-西伊-哈阿

〈표 12〉는 표제어에 속격조사 'i'가 포함된 예이다. (나)의 만주자 표기에

서는 'i'가 분절되어 있으므로, 십이자두표에 따르면 '伊[i]'가 쓰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에서는 '尼'가 단독으로 삼합절음을 구성하고 있다. 십이자두표에 따르면 '尼'는 단독으로 'i'를 나타내는 삼합절음으로 쓰일 수 있는 글자가 아니며, 'ni-'의 초두자로만 쓰이는 글자이다.

이처럼 속격조사 'i'의 표기에 '伊'가 아닌 '尼'가 쓰이는 예외적인 현상은 선행 명사의 말음이 '-n'인 경우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속격조사 'i'의 음운론적 지위나 비음 'n'의 조음음성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해석해 볼 여지가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25]

〈표 13〉『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의 실제(2)

원문	
표제어	aššambi 〈15:24a〉
삼합절음 표기	aš-šam-bi 阿/沙-沙阿/穆-畢伊

〈표 13〉에서 'aššambi'의 주음 표기에 사용된 '阿/沙[aš]' 역시 십이자두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삼합절음이다. 십이자두표에는 'aš uju'와 같은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沙'는 'ša-'의 구성에 쓰인 초두자인데, 'aššambi'와 같은 '-šš-'의 연쇄를 표기하기 위해 '沙'를 취하여 새로

25) 이 표기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이것을 선행 명사의 형태를 밝히면서도 실제 발음까지 보여 주는 일종의 형태론적 장치(김유범, 「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2012)로 보는 것이다. 만주어의 속격조사 'i'는 선행 명사에 음운론적으로 종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표 12〉와 같은 환경에서 선행 명사의 말음 '-n'은 후행 음절의 초성으로 발음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격조사 'i'를 '尼'로 표기한 예가 선행 명사의 말음이 '-n'인 경우에만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이 표기를 만주어의 실제 발음을 반영한 음운론적 장치로 볼 수도 있다. 즉 '-n'으로 끝나는 명사와 속격조사 'i'가 연쇄될 경우 선행 명사의 마지막 음절에서 일어난 폐쇄가 다음 음절에서 개방되어 비음이 두 음절에 걸쳐 조음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러 가능성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일지는 만주어의 음운 현상을 포함한 더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운 유형의 삼합절음을 구성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4〉『어제증정청문감』에 나타난 삼합절음 표기의 실제(3)

원문	
표제어	weisha〈1:7b〉
삼합절음 표기	wei-s-ha 倭額/衣-斯-哈阿

〈표 14〉에 제시된 'weisha'의 십이자두 표기에는 한 자소로 구성된 '斯[s]'가 포함되어 있는데, '斯[s]' 역시 십이자두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삼합절음이다. '斯'는 'as uju'의 '-s'를 적는 데 쓰인 말미자이며, '斯'가 단독으로 삼합절음을 구성하거나 초두자로 쓰인 예는 십이자두표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weisha'의 경우 'weis'와 'ha'가 각기 하나의 음절을 이루며, 이때 '-s'는 선행 음절의 종성으로 실현되었을 것이다. 하나의 음절이 하나의 삼합절음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斯'까지가 '倭額/衣'와 함께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삼합절음의 체계 내에서는 하나의 음절을 네 개의 자소로 표기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倭額/衣'와는 별도로 '斯'를 분리하여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표 14〉와 같은 문제는 삼합절음이 4개 이상의 분절음으로 구성된 음절을 표기하는 데는 제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같은 문제를 '期烏/衣[kioi], 期烏/韓[kiong]'과 같이 자음과 주변 모음의 연쇄를 포함한 음절의 표기(CPVC, CPVP 유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음절을 삼합절음으로 표기할 경우 모든 자소마다 하나의 음소를 대응시킬 수 없어, 자음과 주변 모음의 연쇄를 초두자 하나로만 나타낸다.

세 글자로 구성된 삼합절음은 한 글자로 구성된 直音, 두 글자로 구성된 反切을 거쳐 고안된 가장 심화된 주음 방법이었으나, 삼합절음 역시 넷 이상

의 음소로 이루어진 더 복잡한 음절 구조까지 담아내지는 못하는 문자 운용상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합절음은 제한된 가능성 안에서 만주어 음절의 구조와 발음을 가능한 한 세밀하고 정확하게 옮겨내려 한 가장 발전된 시도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4. 나오며

『어제증정청문감』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삼합절음은 한자를 이용한 주음 방법의 전통에서도 가장 발전된 체계를 보여 준다. 그것은 독약이나 직음, 그리고 반절 등 기존의 한자 주음 방법이 지니고 있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도 비교적 세밀하게 음절의 구조를 표기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특히 분절음의 특성에 따라 글자를 달리 선택하고 주변 모음과 같은 요소를 별도의 글자로 표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어제증정청문감』에서는 삼합절음과 관련하여 일종의 음절대응표에 해당하는 「삼합한자십이자두」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고 체계적인 표기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주음 표기에서는 음절대응의 원칙에 어긋나는 양상도 일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수립된 원칙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만주어의 실제 음가를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현실적인 주음 표기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삼합절음은 한자를 이용해 만주어의 발음을 가능한 한 충실히 담아내고자 한 노력의 결과였지만, 만주어 음절 구조의 복잡한 양상을 모두 온전하게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합절음은 한자 주음 방법의 역사에서 가장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주음 방법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 주음 방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려고 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유범,「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어문논집』66, 민족어문학회, 2012, 81-100면.
김혜,「청대 만주어 사전의 한자 주음 변화:《滿漢同文類集》을 중심으로」,『한국언어학회 전국학술대회 학술논문집』, 한국언어학회, 2014, 89-98면.
成百仁,「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東方學志』52, 延世大 國學硏究院, 1986, 219-258면.
_____,『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1999.
落合守和,「增訂清文鑑十二字頭の三合切音: 附欽定西域同文志注解稿二阿克蘇属・烏什属地山水名」,『静岡大学教養部研究報告 人文・社会科学篇』20(2), 1985, 172-125.
服部四郎,「母音調和と中期朝鮮語の母音體系」,『言語の科學』6, 1975, 1-22.
石田幹之助,「女眞語硏究の新資料」,『桑原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1931, 1271-1323.
愛新覺羅 烏拉熙春,『明代の女眞人:『女眞譯語』から『永寧寺記碑』へ』,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09.
W. South Coblin, "A compendium of phonetics in Northwest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7, 1994, 1-504.
Đình-Hoà Nguyễn, "Graphemic borrowings from Chinese: The case of chữ nôm-Vietnam's demotic script,"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Philology* 61(2), 1990, 383-432.
Zev Handel, *Sinography: The Borrowing and Adaptation of the Chinese Script*, Leiden: Brill, 2019.

[부록]「三合漢字十二字頭」의 십이자두표

a uju	a	e	i	o	u	ū
∅	阿	額	伊	鄂	烏	謣
n-	納阿	訥額	尼伊	難鄂	努烏	懦謣
k-	喀阿	珂額	期伊	科鄂	枯烏	軻烏
g-	噶阿	歌額	基伊	鍋鄂	沽烏	觚烏
h-	哈阿	呵額	希伊	和鄂	祜烏	呼烏
b-	巴阿	伯額	畢伊	玻鄂	補烏	播鄂
p-	琶阿	珀額	毘伊	坡鄂	鋪烏	潑謣
s-	薩阿	塞額	西伊	莎鄂	蘇烏	索謣
š-	沙阿	余額	施伊	碩鄂	舒烏	朔謣
t-	塔阿	特額	梯伊	陀鄂	圖烏	-
d-	達阿	德額	氐伊	多鄂	都烏	-
l-	瑯阿	勒額	禮伊	羅鄂	魯烏	洛謣
m-	瑪阿	墨額	密伊	摩鄂	穆烏	幕謣
c-	察阿	車額	綴伊	綽鄂	初烏	輟謣
j-	楂阿	遮額	齎伊	卓鄂	諸烏	鐲謣
y-	鴉阿	葉額	-	岳鄂	兪烏	約謣
k´-	卡阿	-	-	稞鄂	-	-
g´-	嘎阿	-	-	郭鄂	-	-
h´-	嚇阿	-	-	豁鄂	-	-
r-	喇阿	哷額	哩伊	囉鄂	嚕烏	嘽謣
f-	法阿	弗額	飛伊	佛鄂	扶烏	拂謣
w-	斡阿	倭額	-	-	-	-
ts-	擦阿	策額	推伊	磋鄂	粗烏	-
dz-	匝阿	則額	資伊	坐鄂	租烏	-
ž-	髽阿	勒額	日伊	若鄂	儒烏	-
sy-	-	-	思伊	-	-	-
c´y-	-	-	螭伊	-	-	-
jy-	-	-	之伊	-	-	-

ai uju	ai	ei	ii	oi	ui	ūi
∅	阿衣	額衣	伊衣	鄂衣	烏衣	謂衣
n-	納阿/衣	訥額/衣	尼伊/衣	難鄂/衣	努烏/衣	懦謂/衣
k-	喀阿/衣	珂額/衣	期伊/衣	科鄂/衣	枯烏/衣	軻烏/衣
g-	噶阿/衣	歌額/衣	基伊/衣	鍋鄂/衣	沽烏/衣	觚烏/衣
h-	哈阿/衣	呵額/衣	希伊/衣	和鄂/衣	祜烏/衣	呼烏/衣
b-	巴阿/衣	伯額/衣	畢伊/衣	玻鄂/衣	補烏/衣	播謂/衣
p-	琶阿/衣	珀額/衣	毘伊/衣	坡鄂/衣	鋪烏/衣	潑謂/衣
s-	薩阿/衣	塞額/衣	西伊/衣	莎鄂/衣	蘇烏/衣	索謂/衣
š-	沙阿/衣	余額/衣	-	碩鄂/衣	舒烏/衣	朔謂/衣
t-	塔阿/衣	特額/衣	梯伊/衣	陀鄂/衣	圖烏/衣	-
d-	達阿/衣	德額/衣	氐伊/衣	多鄂/衣	都烏/衣	-
l-	喇阿/衣	勒額/衣	禮伊/衣	羅鄂/衣	魯烏/衣	洛謂/衣
m-	瑪阿/衣	墨額/衣	密伊/衣	摩鄂/衣	穆烏/衣	幕謂/衣
c-	察阿/衣	車額/衣	綴伊/衣	綽鄂/衣	初烏/衣	輟謂/衣
j-	楂阿/衣	遮額/衣	齎伊/衣	卓鄂/衣	諸烏/衣	鐲謂/衣
y-	鴉阿/衣	葉額/衣	-	岳鄂/衣	俞烏/衣	約謂/衣
k′-	卡阿/衣	-	-	稞鄂/衣	-	-
g′-	嘎阿/衣	-	-	郭鄂/衣	-	-
h′-	嗑阿/衣	-	-	豁鄂/衣	-	-
r-	喇阿/衣	哷額/衣	哩伊/衣	囉鄂/衣	嚕烏/衣	嚩謂/衣
f-	法阿/衣	弗額/衣	飛伊/衣	佛鄂/衣	扶烏/衣	拂謂/衣
w-	斡阿/衣	倭額/衣	-	-	-	-
ts-	擦阿/衣	策額/衣	-	磋鄂/衣	粗烏/衣	-
dz-	匝阿/衣	則額/衣	-	侳鄂/衣	租烏/衣	-
ž-	髽阿/衣	執額/衣	-	若鄂/衣	儒烏/衣	-
sy-	-	-	-	-	-	-
c′y-	-	-	-	-	-	-
jy-	-	-	-	-	-	-
ki-	-	-	-	期烏/衣	-	-
gi-	-	-	-	基烏/衣	-	-
hi-	-	-	-	希烏/衣	-	-
ci-	-	-	-	綽烏/衣	-	-
ji-	-	-	-	齎烏/衣	-	-
si-	-	-	-	西烏/衣	-	-
i-	-	-	-	伊烏/衣	-	-
ni-	-	-	-	尼烏/衣	-	-
li-	-	-	-	禮烏/衣	-	-

ar uju	ar	er	ir	or	ur	ūr
∅	阿/哼	額/哼	伊/哼	鄂/哼	烏/哼	謂/哼
n-	納阿/哼	訥額/哼	尼伊/哼	難鄂/哼	努烏/哼	懦謂/哼
k-	喀阿/哼	珂額/哼	期伊/哼	科鄂/哼	枯烏/哼	軻烏/哼
g-	噶阿/哼	歌額/哼	基伊/哼	鍋鄂/哼	沽烏/哼	觚烏/哼
h-	哈阿/哼	呵額/哼	希伊/哼	和鄂/哼	祜烏/哼	呼烏/哼
b-	巴阿/哼	伯額/哼	畢伊/哼	玻鄂/哼	補烏/哼	播謂/哼
p-	琶阿/哼	珀額/哼	毘伊/哼	坡鄂/哼	鋪烏/哼	潑謂/哼
s-	薩阿/哼	塞額/哼	西伊/哼	莎鄂/哼	蘇烏/哼	索謂/哼
š-	沙阿/哼	余額/哼	-	碩鄂/哼	舒烏/哼	朔謂/哼
t-	塔阿/哼	特額/哼	梯伊/哼	陀鄂/哼	圖烏/哼	-
d-	達阿/哼	德額/哼	氐伊/哼	多鄂/哼	都烏/哼	-
l-	瀨阿/哼	勒額/哼	禮伊/哼	羅鄂/哼	魯烏/哼	洛謂/哼
m-	瑪阿/哼	墨額/哼	密伊/哼	摩鄂/哼	穆烏/哼	幕謂/哼
c-	察阿/哼	車額/哼	綽伊/哼	綽鄂/哼	初烏/哼	輟謂/哼
j-	楂阿/哼	遮額/哼	齎伊/哼	卓鄂/哼	諸烏/哼	鐲謂/哼
y-	鴉阿/哼	葉額/哼	-	岳鄂/哼	兪烏/哼	約謂/哼
k′-	卡阿/哼	-	-	稞鄂/哼	-	-
g′-	嘎阿/哼	-	-	郭鄂/哼	-	-
h′-	嗶阿/哼	-	-	豁鄂/哼	-	-
r-	喇阿/哼	哼額/哼	哩伊/哼	囉鄂/哼	嚕烏/哼	嘮謂/哼
f-	法阿/哼	弗額/哼	飛伊/哼	佛鄂/哼	扶烏/哼	拂謂/哼
w-	斡阿/哼	倭額/哼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n uju	an	en	in	on	un	ūn
∅	阿安	額恩	伊因	鄂安	烏恩	諤恩
n-	納阿/安	訥額/恩	尼伊/因	難鄂/安	努烏/恩	懦諤/恩
k-	喀阿/安	珂額/恩	期伊/因	科鄂/安	枯烏/恩	軻烏/恩
g-	噶阿/安	歌額/恩	基伊/因	鍋鄂/安	沽烏/恩	觚烏/恩
h-	哈阿/安	呵額/恩	希伊/因	和鄂/安	祜烏/恩	呼烏/恩
b-	巴阿/安	伯額/恩	畢伊/因	玻鄂/安	補烏/恩	播鄂/恩
p-	琶阿/安	珀額/恩	毘伊/因	坡鄂/安	鋪烏/恩	潑諤/恩
s-	薩阿/安	塞額/恩	西伊/因	莎鄂/安	蘇烏/恩	索諤/恩
š-	沙阿/安	余額/恩	-	碩鄂/安	舒烏/恩	朔諤/恩
t-	塔阿/安	特額/恩	梯伊/因	陀鄂/安	圖烏/恩	-
d-	達阿/安	德額/恩	氐伊/因	多鄂/安	都烏/恩	-
l-	瑯阿/安	勒額/恩	禮伊/因	羅鄂/安	魯烏/恩	洛諤/恩
m-	瑪阿/安	墨額/恩	密伊/因	摩鄂/安	穆烏/恩	幕諤/恩
c-	察阿/安	車額/恩	綽伊/因	綽鄂/安	初烏/恩	輟諤/恩
j-	楂阿/安	遮額/恩	齎伊/因	卓鄂/安	諸烏/恩	鐲諤/恩
y-	鴉阿/安	葉額/恩	-	岳鄂/安	兪烏/恩	約諤/恩
k′-	卡阿/安	-	-	稞鄂/安	-	-
g′-	嘎阿/安	-	-	郭鄂/安	-	-
h′-	嘓阿/安	-	-	豁鄂/安	-	-
r-	喇阿/安	呼額/恩	哩伊/因	囉鄂/安	嚕烏/恩	嘓諤/恩
f-	法阿/安	弗額/恩	飛伊/因	佛鄂/安	扶烏/恩	拂諤/恩
w-	斡阿/安	倭額/恩	-	-	-	-
ts-	擦鄂/安	策額/恩	-	磋鄂/安	粗烏/恩	-
dz-	匝阿/安	則額/恩	-	侳鄂/安	租烏/恩	-
ž-	髽阿/安	執額/恩	日伊/因	若鄂/安	儒烏/恩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ng uju	ang	eng	ing	ong	ung	ūng
∅	阿昂	額鞅	伊英	鄂昂	烏鞅	諤鞅
n-	納阿/昂	訥額/鞅	尼伊/英	難鄂/昂	努烏/鞅	懦諤/鞅
k-	喀阿/昂	-	-	科鄂/昂	-	軻烏/鞅
g-	噶阿/昂	-	-	鍋鄂/昂	-	觚烏/鞅
h-	哈阿/昂	-	-	和鄂/昂	-	呼烏/鞅
b-	巴阿/昂	伯額/鞅	畢伊/英	玻鄂/昂	補烏/鞅	播諤/鞅
p-	琶阿/昂	珀額/鞅	毘伊/英	坡鄂/昂	鋪烏/鞅	潑諤/鞅
s-	薩阿/昂	塞額/鞅	西伊/英	莎鄂/昂	蘇烏/鞅	索諤/鞅
š-	沙阿/昂	余額/鞅	-	碩鄂/昂	舒烏/鞅	朔諤/鞅
t-	塔阿/昂	特額/鞅	梯伊/英	陀鄂/昂	圖烏/鞅	-
d-	達阿/昂	德額/鞅	氐伊/英	多鄂/昂	都烏/鞅	-
l-	瑯阿/昂	勒額/鞅	禮伊/英	羅鄂/昂	魯烏/鞅	洛諤/鞅
m-	瑪阿/昂	墨額/鞅	密伊/英	摩鄂/昂	穆烏/鞅	幕諤/鞅
c-	察阿/昂	車額/鞅	綽伊/英	綽鄂/昂	初烏/鞅	輟諤/鞅
j-	楂阿/昂	遮額/鞅	齎伊/英	卓鄂/昂	諸烏/鞅	鐲諤/鞅
y-	鴉阿/昂	葉額/鞅	-	岳鄂/昂	兪烏/鞅	約諤/鞅
k'-	卡阿/昂	-	-	稞鄂/昂	-	-
g'-	嘎阿/昂	-	-	郭鄂/昂	-	-
h'-	嗢阿/昂	-	-	豁鄂/昂	-	-
r-	喇阿/昂	呥額/鞅	哩伊/英	囉鄂/昂	嚕烏/鞅	噥諤/鞅
f-	法阿/昂	弗額/鞅	飛伊/英	佛鄂/昂	扶烏/鞅	拂諤/鞅
w-	斡阿/昂	倭額/鞅	-	-	-	-
ts-	擦阿/昂	策額/鞅	-	磋鄂/昂	粗烏/鞅	-
dz-	匝阿/昂	則額/鞅	-	侳鄂/昂	租烏/鞅	-
ž-	髽阿/昂	執額/鞅	-	若額/昂	儒烏/鞅	-
sy-	-	-	-	-	-	-
c'y-	-	-	-	-	-	-
jy-	-	-	-	-	-	-
ki-	-	-	-	期烏/鞅	-	-
gi-	-	-	-	基烏/鞅	-	-
hi-	-	-	-	希烏/鞅	-	-
ci-	-	-	-	綽烏/鞅	-	-
ji-	-	-	-	齎烏/鞅	-	-
si-	-	-	-	西烏/鞅	-	-
i-	-	-	-	伊烏/鞅	-	-
ni-	-	-	-	尼烏/鞅	-	-
li-	-	-	-	禮烏/鞅	-	-

ak uju	ak	ek	ik	ok	uk	ūk
∅	阿/克	額/克	伊/克	鄂/克	烏/克	諤/克
n-	納阿/克	訥額/克	尼伊/克	難鄂/克	努烏/克	懦諤/克
k-	喀阿/克	珂額/克	期伊/克	科鄂/克	枯烏/克	軻烏/克
g-	噶阿/克	歌額/克	基伊/克	鍋鄂/克	沽烏/克	觚烏/克
h-	哈阿/克	呵額/克	希伊/克	和鄂/克	祜烏/克	呼烏/克
b-	巴阿/克	伯額/克	畢伊/克	玻鄂/克	補烏/克	播諤/克
p-	琶阿/克	珀額/克	毘伊/克	坡鄂/克	鋪烏/克	潑諤/克
s-	薩阿/克	塞額/克	西伊/克	莎鄂/克	蘇烏/克	索諤/克
š-	沙阿/克	余額/克	-	碩鄂/克	舒烏/克	朔諤/克
t-	塔阿/克	特額/克	梯伊/克	陀鄂/克	圖烏/克	-
d-	達阿/克	德額/克	氐伊/克	多鄂/克	都烏/克	-
l-	瑯阿/克	勒額/克	禮伊/克	羅鄂/克	魯烏/克	洛諤/克
m-	瑪阿/克	墨額/克	密伊/克	摩鄂/克	穆烏/克	幕諤/克
c-	察阿/克	車額/克	緀伊/克	綽鄂/克	初烏/克	輟諤/克
j-	楂阿/克	遮額/克	齎伊/克	卓鄂/克	諸烏/克	鐲諤/克
y-	鴉阿/克	葉額/克	-	岳鄂/克	俞烏/克	約諤/克
k′-	卡阿/克	-	-	稞鄂/克	-	-
g′-	嘎阿/克	-	-	郭鄂/克	-	-
h′-	嗢阿/克	-	-	豁鄂/克	-	-
r-	喇阿/克	呼額/克	哩伊/克	囉鄂/克	嚕烏/克	嚩諤/克
f-	法阿/克	弗額/克	飛伊/克	佛鄂/克	扶烏/克	拂諤/克
w-	斡阿/克	倭額/克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s uju	-as	-es	-is	-os	-us	-ūs
∅	阿/斯	額/斯	伊/斯	鄂/斯	烏/斯	諤/斯
n-	納阿/斯	訥額/斯	尼伊/斯	難鄂/斯	努烏/斯	懦諤/斯
k-	喀阿/斯	珂額/斯	期伊/斯	科鄂/斯	枯烏/斯	軻烏/斯
g-	噶阿/斯	歌額/斯	基伊/斯	鍋鄂/斯	沽烏/斯	觚烏/斯
h-	哈阿/斯	呵額/斯	希伊/斯	和鄂/斯	祜烏/斯	呼烏/斯
b-	巴阿/斯	伯額/斯	畢伊/斯	玻鄂/斯	補烏/斯	播諤/斯
p-	琶阿/斯	珀額/斯	毘伊/斯	坡鄂/斯	鋪烏/斯	潑諤/斯
s-	薩阿/斯	塞額/斯	西伊/斯	莎鄂/斯	蘇烏/斯	索諤/斯
š-	沙阿/斯	余額/斯	-	碩鄂/斯	舒烏/斯	朔諤/斯
t-	塔阿/斯	特額/斯	梯伊/斯	陀鄂/斯	圖烏/斯	-
d-	達阿/斯	德額/斯	氐伊/斯	多鄂/斯	都烏/斯	-
l-	瀨阿/斯	勒額/斯	禮伊/斯	羅鄂/斯	魯烏/斯	洛諤/斯
m-	瑪阿/斯	墨額/斯	密伊/斯	摩鄂/斯	穆烏/斯	幕諤/斯
c-	察阿/斯	車額/斯	綽伊/斯	綽鄂/斯	初烏/斯	輟諤/斯
j-	楂阿/斯	遮額/斯	齎伊/斯	卓鄂/斯	諸烏/斯	鐲諤/斯
y-	鴉阿/斯	葉額/斯	-	岳鄂/斯	俞烏/斯	約諤/斯
k′-	卡阿/斯	-	-	稞鄂/斯	-	-
g′-	嘎阿/斯	-	-	郭鄂/斯	-	-
h′-	嗢阿/斯	-	-	豁鄂/斯	-	-
r-	喇阿/斯	哷額/斯	哩伊/斯	囉鄂/斯	嚕烏/斯	嚩諤/斯
f-	法阿/斯	弗額/斯	飛伊/斯	佛鄂/斯	扶烏/斯	拂諤/斯
w-	斡阿/斯	倭額/斯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t uju	-at	-et	-it	-ot	-ut	-ūt
∅	阿/特	額/特	伊/特	鄂/特	烏/特	諤/特
n-	納阿/特	訥額/特	尼伊/特	難鄂/特	努烏/特	懦諤/特
k-	喀阿/特	珂額/特	期伊/特	科鄂/特	枯烏/特	軻烏/特
g-	噶阿/特	歌額/特	基伊/特	鍋鄂/特	沽烏/特	觚烏/特
h-	哈阿/特	呵額/特	希伊/特	和鄂/特	祜烏/特	呼烏/特
b-	巴阿/特	伯額/特	畢伊/特	玻鄂/特	補烏/特	播諤/特
p-	琶阿/特	珀額/特	毘伊/特	坡鄂/特	鋪烏/特	潑諤/特
s-	薩阿/特	塞額/特	西伊/特	莎鄂/特	蘇烏/特	索諤/特
š-	沙阿/特	余額/特	-	碩鄂/特	舒烏/特	朔諤/特
t-	塔阿/特	特額/特	梯伊/特	陀鄂/特	圖烏/特	-
d-	達阿/特	德額/特	氐伊/特	多鄂/特	都烏/特	-
l-	瀨阿/特	勒額/特	禮伊/特	羅鄂/特	魯烏/特	洛諤/特
m-	瑪阿/特	墨額/特	密伊/特	摩鄂/特	穆烏/特	幕諤/特
c-	察阿/特	車額/特	綽伊/特	綽鄂/特	初烏/特	輟諤/特
j-	楂阿/特	遮額/特	齎伊/特	卓鄂/特	諸烏/特	鐲諤/特
y-	鴉阿/特	葉額/特	-	岳鄂/特	俞烏/特	約諤/特
k′-	卡阿/特	-	-	稞鄂/特	-	-
g′-	嗄阿/特	-	-	郭鄂/特	-	-
h′-	嗢阿/特	-	-	豁鄂/特	-	-
r-	喇阿/特	哷額/特	哩伊/特	囉鄂/特	嚕烏/特	嚩諤/特
f-	法阿/特	弗額/特	飛伊/特	佛鄂/特	扶烏/特	拂諤/特
w-	斡阿/特	倭額/特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b uju	-ab	-eb	-ib	-ob	-ub	-ūb
∅	阿/補	額/補	伊/補	鄂/補	烏/補	諤/補
n-	納阿/補	訥額/補	尼伊/補	難鄂/補	努烏/補	懦諤/補
k-	喀阿/補	珂額/補	期伊/補	科鄂/補	枯烏/補	軻烏/補
g-	噶阿/補	歌額/補	基伊/補	鍋鄂/補	沽烏/補	觚烏/補
h-	哈阿/補	呵額/補	希伊/補	和鄂/補	祜烏/補	呼烏/補
b-	巴阿/補	伯額/補	畢伊/補	玻鄂/補	補烏/補	播諤/補
p-	琶阿/補	珀額/補	毘伊/補	坡鄂/補	鋪烏/補	潑諤/補
s-	薩阿/補	塞額/補	西伊/補	莎鄂/補	蘇烏/補	索諤/補
š-	沙阿/補	余額/補	-	碩鄂/補	舒烏/補	朔諤/補
t-	塔阿/補	特額/補	梯伊/補	陀鄂/補	圖烏/補	-
d-	達阿/補	德額/補	氐伊/補	多鄂/補	都烏/補	-
l-	瑯阿/補	勒額/補	禮伊/補	羅鄂/補	魯烏/補	洛諤/補
m-	瑪阿/補	墨額/補	密伊/補	摩鄂/補	穆烏/補	幕諤/補
c-	察阿/補	車額/補	綽伊/補	綽鄂/補	初烏/補	輟諤/補
j-	楂阿/補	遮額/補	齎伊/補	卓鄂/補	諸烏/補	鐲諤/補
y-	鴉阿/補	葉額/補	-	岳鄂/補	俞烏/補	約諤/補
k′-	卡阿/補	-	-	稞鄂/補	-	-
g′-	嘎阿/補	-	-	郭鄂/補	-	-
h′-	嗑阿/補	-	-	豁鄂/補	-	-
r-	喇阿/補	呥額/補	哩伊/補	囉鄂/補	嚕烏/補	嘽諤/補
f-	法阿/補	弗額/補	飛伊/補	佛鄂/補	扶烏/補	拂諤/補
w-	斡阿/補	倭額/補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o uju	-ao	-eo	-io	-oo	-uo	-ūo
∅	阿傲	額歐	伊優	鄂傲	烏歐	謣歐
n-	納阿/傲	訥額/歐	尼伊/優	難鄂/傲	努烏/歐	懦謣/歐
k-	喀阿/傲	珂額/歐	期伊/優	科鄂/傲	枯烏/歐	軻烏/歐
g-	噶阿/傲	歌額/歐	基伊/優	鍋鄂/傲	沽烏/歐	觚烏/歐
h-	哈阿/傲	呵額/歐	希伊/優	和鄂/傲	祜烏/歐	呼烏/歐
b-	巴阿/傲	伯額/歐	畢伊/優	玻鄂/傲	補烏/歐	播謣/歐
p-	琶阿/傲	珀額/歐	毘伊/優	坡鄂/傲	鋪烏/歐	潑謣/歐
s-	薩阿/傲	塞額/歐	西伊/優	莎鄂/傲	蘇烏/歐	索謣/歐
š-	沙阿/傲	余額/歐	-	碩鄂/傲	舒烏/歐	朔謣/歐
t-	塔阿/傲	特額/歐	梯伊/優	陀鄂/傲	圖烏/歐	-
d-	達阿/傲	德額/歐	氐伊/優	多鄂/傲	都烏/歐	-
l-	瑯阿/傲	勒額/歐	禮伊/優	羅鄂/傲	魯烏/歐	洛謣/歐
m-	瑪阿/傲	墨額/歐	密伊/優	摩鄂/傲	穆烏/歐	幕謣/歐
c-	察阿/傲	車額/歐	緀伊/優	綽鄂/傲	初烏/歐	輟謣/歐
j-	楂阿/傲	遮額/歐	齎伊/優	卓鄂/傲	諸烏/歐	鐲謣/歐
y-	鴉阿/傲	葉額/歐	-	岳鄂/傲	兪烏/歐	約謣/歐
k′-	卡阿/傲	-	-	稞鄂/傲	-	-
g′-	嘎阿/傲	-	-	郭鄂/傲	-	-
h′-	嗑阿/傲	-	-	豁鄂/傲	-	-
r-	喇阿/傲	呼額/歐	哩伊/優	囉鄂/傲	嚕烏/歐	嘐謣/歐
f-	法阿/傲	弗額/歐	飛伊/優	佛鄂/傲	扶烏/歐	拂謣/歐
w-	斡阿/傲	倭額/歐	-	-	-	-
ts-	擦阿/傲	策額/歐	-	磋鄂/傲	粗烏/歐	-
dz-	匝阿/傲	則額/歐	-	侳鄂/傲	租烏/歐	-
ž-	髽阿/傲	執額/歐	-	若鄂/傲	儒烏/歐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l uju	-al	-el	-il	-ol	-ul	-ūl
∅	阿/勒	額/勒	伊/勒	鄂/勒	烏/勒	諤/勒
n-	納阿/勒	訥額/勒	尼伊/勒	難鄂/勒	努烏/勒	懦諤/勒
k-	喀阿/勒	珂額/勒	期伊/勒	科鄂/勒	枯烏/勒	軻烏/勒
g-	噶阿/勒	歌額/勒	基伊/勒	鍋鄂/勒	沽烏/勒	觚烏/勒
h-	哈阿/勒	呵額/勒	希伊/勒	和鄂/勒	祜烏/勒	呼烏/勒
b-	巴阿/勒	伯額/勒	畢伊/勒	玻鄂/勒	補烏/勒	播諤/勒
p-	琶阿/勒	珀額/勒	毘伊/勒	坡鄂/勒	鋪烏/勒	潑諤/勒
s-	薩阿/勒	塞額/勒	西伊/勒	莎鄂/勒	蘇烏/勒	索諤/勒
š-	沙阿/勒	余額/勒	-	碩鄂/勒	舒烏/勒	朔諤/勒
t-	塔阿/勒	特額/勒	梯伊/勒	陀鄂/勒	圖烏/勒	-
d-	達阿/勒	德額/勒	氐伊/勒	多鄂/勒	都烏/勒	-
l-	琍阿/勒	勒額/勒	禮伊/勒	羅鄂/勒	魯烏/勒	洛諤/勒
m-	瑪阿/勒	墨額/勒	密伊/勒	摩鄂/勒	穆烏/勒	幕諤/勒
c-	察阿/勒	車額/勒	綽伊/勒	綽鄂/勒	初烏/勒	輟諤/勒
j-	楂阿/勒	遮額/勒	齎伊/勒	卓鄂/勒	諸烏/勒	鐲諤/勒
y-	鴉阿/勒	葉額/勒	-	岳鄂/勒	俞烏/勒	約諤/勒
k′-	卡阿/勒	-	-	稞鄂/勒	-	-
g′-	嘎阿/勒	-	-	郭鄂/勒	-	-
h′-	嗢阿/勒	-	-	豁鄂/勒	-	-
r-	喇阿/勒	哷額/勒	哩伊/勒	囉鄂/勒	嚕烏/勒	嚼諤/勒
f-	法阿/勒	弗額/勒	飛伊/勒	佛鄂/勒	扶烏/勒	拂諤/勒
w-	斡阿/勒	倭額/勒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m uju	-am	-em	-im	-om	-um	-ūm
∅	阿/穆	額/穆	伊/穆	鄂/穆	烏/穆	諤/穆
n-	納阿/穆	訥額/穆	尼伊/穆	難鄂/穆	努烏/穆	懦諤/穆
k-	喀阿/穆	珂額/穆	期伊/穆	科鄂/穆	枯烏/穆	軻烏/穆
g-	噶阿/穆	歌額/穆	基伊/穆	鍋鄂/穆	沽烏/穆	觚烏/穆
h-	哈阿/穆	呵額/穆	希伊/穆	和鄂/穆	祜烏/穆	呼烏/穆
b-	巴阿/穆	伯額/穆	畢伊/穆	玻鄂/穆	補烏/穆	播諤/穆
p-	琶阿/穆	珀額/穆	毘伊/穆	坡鄂/穆	鋪烏/穆	潑諤/穆
s-	薩阿/穆	塞額/穆	西伊/穆	莎鄂/穆	蘇烏/穆	索諤/穆
š-	沙阿/穆	余額/穆	-	碩鄂/穆	舒烏/穆	朔諤/穆
t-	塔阿/穆	特額/穆	梯伊/穆	陀鄂/穆	圖烏/穆	-
d-	達阿/穆	德額/穆	氐伊/穆	多鄂/穆	都烏/穆	-
l-	瀨阿/穆	勒額/穆	禮伊/穆	羅鄂/穆	魯烏/穆	洛諤/穆
m-	瑪阿/穆	墨額/穆	密伊/穆	摩鄂/穆	穆烏/穆	幕諤/穆
c-	察阿/穆	車額/穆	綾伊/穆	綽鄂/穆	初烏/穆	輟諤/穆
j-	楂阿/穆	遮額/穆	齎伊/穆	卓鄂/穆	諸烏/穆	鐲諤/穆
y-	鴉阿/穆	葉額/穆	-	岳鄂/穆	兪烏/穆	約諤/穆
k′-	卡阿/穆	-	-	稞鄂/穆	-	-
g′-	嘎阿/穆	-	-	郭鄂/穆	-	-
h′-	嘓阿/穆	-	-	豁鄂/穆	-	-
r-	喇阿/穆	哷額/穆	哩伊/穆	囉鄂/穆	嚕烏/穆	嘮諤/穆
f-	法阿/穆	弗額/穆	飛伊/穆	佛鄂/穆	扶烏/穆	拂諤/穆
w-	斡阿/穆	倭額/穆	-	-	-	-
ts-	-	-	-	-	-	-
dz-	-	-	-	-	-	-
ž-	-	-	-	-	-	-
sy-	-	-	-	-	-	-
c′y-	-	-	-	-	-	-
jy-	-	-	-	-	-	-

【Abstract】

A study on the sinographic notations of Manchu language in the *Yuzhi Zengding Qingwenjian*

Seong, Wu-Cheol* · Kim, Yu-Pum** · Jung, Eun-Jin*** · Oh, Min-Seok****

Sanheqieyin is a sinographic notation method that represents Manchu syllables by combining at most three graphs. While *sanheqieyin* inherits the tradition of sinographic notation methods including duruo, zhiyin, and fanqie. it sets up devices for notating Manchu syllables in more detail such as changing the arrangement of graphs according to syllable structures and selecting graphs with regard to characteristics of Manchu segments. In *Yuzhi Zengding Qingwenjian*, the principle of applying *sanheqieyin* to Manchu syllables is provided systemically by *sanhe hanzi shierzitou*. Though it fails to entirely represent complex aspects of Manchu syllables, the significance of *sanheqieyin* can be seen in that it is the most advanced method in the history of sinographic notation methods, and that it tri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inographic notation methods.

Keywords: *Yuzhi Zengding Qingwenjian*, *sanheqieyin*, sinographic notation, foreign language transcription, Manchu language.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05.

* Lecture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illa Univ.
** Professor,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
**** Researcher, Center for Manchu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Studies, Korea Univ.